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쉼터 전환모형에 관한 질적 연구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변화 양상과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전환모형에 따른 기관장들의 목소리를 발견하여 뉴노멀 시대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뉴노멀 개념 및 특징, 청소년쉼터의 유형, 청소년쉼터 연구동향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기관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의 6단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가정환경, 가출 원인, 문제 증가(정신과적, 사회, 내적 기제), 기타 특성들이 하위주제화 되어 현재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주제로 수렴화되었다. 또한 유형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에 따른 각 유형별 청소년쉼터 고유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인권친화적 기관 운영 필요, 기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쉼터, 쉼터 공간의 현대화 필요 등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어 뉴노멀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모형을 주제화 할 수 있었다. 이에 기반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과 후속연구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뉴노멀,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쉼터, 전환 모형, 인권

본 논문은 202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정책분석평가의 이론과 실제 I: 주요 쟁점의 탐색” 발표자료를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임.

* 주저자: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02-944-5131/E-mail: kimyoonna@daum.net

I. 서론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다. 2004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 및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서비스 내용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여성가족부에서는 2022년 일시쉼터 32개소, 단기 쉼터 67개소, 중장기쉼터 3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쉼터를 일시-단기-중장기 유형으로 특성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영 모형 및 목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115명이 거리 상담 전문 요원으로 활동하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쉼터로 연계하고 있고 2022년 기준 131명의 야간 보호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른 청소년 쉼터 유형이 설치 운영된지 2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유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거의 없었다.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기능전환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나 결국 아무런 변화없이 거주 기간 중심으로 현재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유형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환경 기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디지털 원주민 청소년들에 대한 치밀한 이용형태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이 다시 대두되었던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불안, 걱정, 우울함, 두려움 등의 스트레스 감정을 더 노출

하였고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신체적, 사회정서적,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상 문제를 가질 위험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서미, 이자영, 편여울강, 김지혜, 정성호, 김신아, 2022).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더 여전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변화 양상과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전환모형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전문가인 기관장들의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한 현상의 구조, 과정, 유형, 기제 등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재 개념화하는 분석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가정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뉴노멀의 개념 및 특징

‘뉴노멀(new normal)’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 위기 이후 5년~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을 뜻하는 경제 용어이다(정대영, 2022). 미국의 벤처투자자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e)가 자신의 저서 뉴노멀의 시대(The New Normal)의 제목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촉발한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던 2009년 핼코(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PIMCO)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용어가 다시 등장하였다.

이후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Pimco의 경영자 Mohamed El-Erian의 저서 ‘When Markets Collide (2008)’에서 사용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형성된 미국의 버블경제 이후 새로운 기준이 일상화된 시대를 지칭하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천우정, 2019). 뉴노멀은 세계경제에 나타날 세계 경제 질서를 통칭하는 말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경제가 예전처럼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 저소비, 저물가, 그리고 고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의미이다(조천희, 2022).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과 거대한 엔진 미국이 이끄는 고속 성장을 누렸던 “올드 노멀”을 대신해 저 성장에 따른 불안정, 강력한 정부 개입, 그리고 작아진 미국 시장과 여러 신흥 시장이 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상황이 일상화된 뉴노멀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진단이었다. 처음에는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지만 특정한 시기와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가 급변할 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되는 것을 뉴노멀이라고 부른다(최재천 외, 2020). 즉 이전에는 흔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점차 흔한 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천우정, 2019).

과거 대공황 이후 정부역할의 증대와 1980년대 이후의 규제 완화 및 IT 기술의 발달로 초래된 금융혁신 등이 대표적인 뉴노멀을 뜻한다(정대영, 2022). 김창경(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노멀로서, 1. 문제해결 비즈니스 2. 문화 3. 공포의 5인방(승자독식) 4. 해체, 5. 인재 소멸 6. 데이터 드리븐 7. 속도 8. 인공지능 탑재, 9. 업종간의 경쟁 10. 유전자 편집 11. 무료 12. 로봇의 12가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재완(2020)은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이라는 연구에서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였다. 1. 지역사회복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적응 또는 활용하는 방식으로 언컨택트 사회의 컨택트화를 지향해야 한다. 2. 수평적, 개방적 공동체, 지역사회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를 위한 효과적인 다양한

참여활동으로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것이며 전자민주주의(디지털 민주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넷째,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IT 역량 강화와 사회적응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돌봄노동이 사회화될 것이고 이에 맞는 인력수요를 준비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복지시설 등 각종 물리적 공간의 재구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사이버 지역사회 등에서 공동체 복지를 위한 모바일 기반 스마트 지역사회 만들기를 실천해야 한다.

김형용(2020) 뉴노멀(New Normal) 복지의 도래 : COVID-19가 앞당긴 미래 사회보호의 과제에서 사회복지의 메가트렌드로 다음의 10가지를 제안하였다. 1. 취약계층 보호 우선(재난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더욱 취약해진 삶) 2. 위험대응의 일상화(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확대) 3. 온택트 지원(급속한 온택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4. 사회적 돌봄체계의 재정립(가정에서 전가된 돌봄 책임) 5. 취약계층 실업과 빈곤 위험 완화(실업 위험 확산과 빈곤 대상 확대: 더 이상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6. 생태적 전환(생태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 필요) 7. 새로운 사회안전망 실험(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실험 필요) 8.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복지 거버넌스) 9. 차별과 혐오를 차단하는 공동체 연대(코로나19로 인한 혐오와 배제의 확산 대응) 10.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고난의 극복(팬데믹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현 사회야말로 온오프가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요구되는 뉴노멀의 시대로 바라보고 이 시대에 부합하는 위기 및 취약계층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부 정책 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2. 청소년쉼터의 유형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다. 청소년쉼터의 이용인원은 2013년 15,242명, 2016년 30,329명, 2017년 31,197명, 2018년 32,109명, 2019년 32,3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YMCA 쉼터’이다. 2004년에 가정 밖 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2010년 대비 2020년 현재 쉼터유형별 증가세를 보면, 일시청소년쉼터가 22개 시설, 단기청소년쉼터가 12개 시설, 중장기청소년쉼터가 15개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이 8개 시설이 각각 증가하여, 일시청소년쉼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왔다.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단기청소년쉼터의 경우, 중장기쉼터 연계 시 학교가 너무 멀어 전학을 해야 하는 등 입소청소년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5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쉼터 운영위원회 승인 필요). 다만 정원초과 등으로 타 청소년의 입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24).

최근에 설치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생활관의 유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생활관 운영을 위주로 하는 숙박형, 생활관 없이 외부의 공간에서 독립하여 주

거하는 청소년에 대해 지원하는 비숙박형 이용시설, 생활관과 독립생활지원을 병행하는 혼합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1>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 (일시이동형, 고정형)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 기간	24시간~ 7일 이내 일시보호	-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 에서 추가 연장 가능(최장 24 개월)	-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 대상	가정밖·거리배 회·노숙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아 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밖 청소년 조기 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연결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 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 활동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 점	가출 예방, 조기 발견, 초기 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2024, 2024 청소년사업안내, p.216)

현재 청소년쉼터는 전국적으로 시설 수 및 유형별 분포의 불균형, 동일 시·도내에서의 유형별 불균형 현상이 심한 상황이며, 청소년쉼터 유형별 평균 이용 청소년 정원의 불균형도 심한 상황이다<표 2, 3 참조>

<표 2> 지역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현황
(2023. 12.31 기준)

구분	계	일시 (33)		단기(66)								중장기 (39)	
		이동형	고정형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인~20인 미만		20~30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38	14	19	3	6	12	17	12	12	2	2	18	21
서울	17	4	4	1	1					1	2	1	3
부산	5	1	1					1	1				1
대구	6	1	1					1	1			1	1
인천	9	1	2					1	2	1		1	1
광주	5	1				1	1					1	1
대전	6	1	1					1	1			1	1
울산	5		1			1	1					1	1
경기	31	2	4		1	2	6	5	3			4	4
강원	9	1	2					1	3			1	1
충북	7	1			1	1		1	1			1	1
충남	10				1	2	4	1				1	1
전북	6		1	1		1	1					1	1
전남	4					2	1					1	
경북	7				2	1	1					1	2
경남	5		1			1	1					1	1
제주	6	1	1	1			1					1	1

<표 3> 지역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 현황
(2023. 12.31 기준)

구분	계	이용형	혼합형
계	13	7	6
서울	2	1 (관악)	1 (도봉)

구분	계	이용형	혼합형
부산	1		1 (사상)
대구	1	1 (남구)	-
인천	2	-	2 (부평, 남동)
대전	1	1 (서구)	-
경기	3	2 (의정부, 군포)	1 (성남)
강원	1	1 (춘천)	-
충남	1	-	1
제주	1	1	-

3. 청소년쉼터의 연구동향

최근에 이루어진 가정밖 청소년 관련 학술지를 분석해보면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손선옥, 박현용, 2023; 임주원, 김서형, 홍진주, 2022; 정지은, 2022), 이용청소년의 특성에 기반한 청소년쉼터의 모형에 관한 개인적인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 개편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시 이동형 쉼터를 아웃리치센터(일시)로 일시고정형 쉼터(7일)를 일시형 3일 청소년쉼터로, 단기·중장기쉼터를 통합하여 3년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일반형 청소년쉼터로, 1년 자립지원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황진구, 김지연, 2020).

그러나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용청소년의 특성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기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 기간 중심)		(개편 안 : 기능 중심)	
1) 일시센터 (일시-7일) - 일시이동형 센터	(변경) ⇨	1) 아웃리치센터 (일시)	
- 일시고정형 센터(7일)	(변경) ⇨	2) 청소년센터 - 일시형 청소년센터 (3일)	
2) 단기센터 (3개월)	(통합) ⇨	- 일반형 청소년센터 (3년)	
3) 중장기센터 (3년)			
4) 자립지원관 (1년)	(유지) ⇨	3) 자립지원관 (1년)	

<그림 1> 황진구 외(2020)의 청소년센터 유형 개편안

구분	참여자								
	1	2	3	4	5	6	7	8	9
청소년 센터 총 경력	19년 3개월	약 9년	10년 9개월	14년 8개월	16년	9년	14년 7개월	21년	20년
기관장 경력	4년	약 4년	11년 9개월	7년11 개월	11년	5년	12년	15년	20년
근무 센터 유형	중장 기	일시	일시	중장기 및 자립 지원 관	단기	자립 지원 관	중장기	단기	자립 지원 관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모두 9명으로 청소년센터의 유형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선발하였으며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질성(Homogeneity)은 기관장이라는 공통성으로 확보하였고, 이질성(Heterogeneity)은 일시,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이라는 센터 각 유형별이라는 특성으로 확보하였다. 다각측정(triangulation)은 추가 질문서면 및 유선으로 답변을 재확인하는 방법과 외국 저널 committee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성별 특성은 여성 5명, 남성 4명이고 나이는 평균 47세였다. 학력은 대졸에서부터 박사졸업까지 다양했으며 청소년센터 총 경력기간의 평균은 14년 9개월, 기관장 경력은 10년 2개월이었다.

<표 2> 연구참여자

구분	참여자								
	1	2	3	4	5	6	7	8	9
나이	40	38	54	48	49	41	41	55	57
성별	여	여	여	남	남	남	여	여	남
학력	대학 원졸	대학원 재학中	박사 학위 수료	대학 원졸	대학원 졸업	대졸	석사 졸업	사회 복지 석사	박사 졸업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면조사 방법으로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6일간 이루어졌다. 1차 자료수집 후 디지털환경에 관한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다. 현재 청소년센터 이용 청소년들의 특성(연령, 문제특성, 가정상황 등), 현재 청소년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귀하의 기관에 머무는 기간은(최단에서 최장, 평균 등), 현재 청소년센터 이용 운영의 어려운 점, 한계점 및 개선점, 향후 이용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센터의 전환모형에 대한 본인 생각 혹은 주변에서 들은 의견, 기타 제언, 앞으로의 센터 방향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추가질문으로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른 센터 전환 모형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은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의 6단계-1단계 '데이터에 익숙해지기', 2단계 '초기 코드 생성하기', 3단계 '주제 찾기', 4단계 '주제 검토하기', 5단계 '주제 정의 및 이름 정하기', 6단계 '보고서 작성하기'-에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분석방법은 무정형의 질적 자료를 질서 짓는 과정에서 현상이나 경험 속에 들어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것으로

(김인숙, 2006),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상의 구조, 과정, 유형, 기제 등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또한 관심 현상의 현실적인 맥락을 반영하고, 연구 참여자 인원 및 구성, 자료수집 등 연구방법측면에서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Braun, & Clarke, 2006).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제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중요 문구, 키워드에 주목해 그룹을 만들고 그룹에 따라 테마를 도출하는 분석 프로세스로 진행된다(Braun & Clarke,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전체적 그림을 얻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전체 자료를 반복하여 읽었다. 2단계 초기 코드를 생성하는 위해 자료에서 주요관심 현상에 대한 의미를 찾아 이용청소년의 특성과 현 청소년쉼터의 한계, 개선점, 향후 발전을 위한 유형의 전환 모형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여 코드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3단계는 주제 찾기단계에서는 생성된 코드를 연구대상자별 제출했던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 및 대조하여 잠정적 하위주제를 추출하였다. 4단계는 주제 고찰 단계에서는 주제가 코드화된 자료와 전체적 자료에 부합되는지 파악하였다. 5단계 주제의 의미를 정의하고 주제를 명명하는 단계에서는 전반적 내용을 고려하여 주제의 본질을 확인한 후 주제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각 주제로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선별된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 및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결과,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으로 후기 청소년의 증가, 남자 청소년의 입소를 증가,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혹은 재혼가정, 학대 등의 가족환경적 요인, 가족갈등, 학업이나 교우 문제로 인한 가출원인 등이 코드화 되었다. 이어 정신과적

(지적장애 3급 수준, 경계선급, 품행장애, 조현증, 우울, 불안, ADHD, 공황, 조울, 양극성 정동장애, 자해(여자), 공격성(남자)) 등의 문제, 비행, 일탈문제, 주거 불안, 일상생활 자기관리 능력 부족, 자립의지 부족, 회복탄력성(외부충격) 약함 등의 심리내적 문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팬데믹 이후 나타나고 있는 쉼터 청소년의 경향적인 특성으로 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입소 증가, 코로나 이후 입소 청소년 감소, 학교 밖 청소년 입소 감소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하위 주제로 연령, 성별, 가정환경, 가출 원인, 문제 증가(정신과적, 사회, 내적 기제), 기타 특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입소 증가, 코로나 이후 입소 청소년 감소, 학교 밖 청소년 입소 감소)들로 하위주제를 그룹핑할 수 있었다.

<표 3> 입소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주제분석

코드 예시	하위 주제	주제	
후기 청소년의 증가	연령 특성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	
남자 청소년의 입소를 증가	성별 특성		
- 경제적 어려움 - 한부모 혹은 재혼가정 등 - 학대	가정환경 특성		
- 가족갈등 - 학업이나 교우 문제	가출 원인		
지적장애 3급 수준, 경계선급, 품행장애, 조현증, 우울, 불안, ADHD, 공황, 조울, 양극성 정동장애, 자해(여자), 공격성(남자) 등	문제 증가		정신과적
비행, 일탈			사회
- 주거 불안 - 일상생활 자기관리 능력 부족 - 자립의지 부족 - 회복탄력성(외부충격) 약함	기타 특성		내적 기제
- 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입소 증가 - 코로나 이후 입소 청소년 감소 - 학교 밖 청소년 입소 감소			

기관장들이 생각하는 유형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현재 생활 권역별/지역별로 유형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도 설계된 패턴대로 연계되지 않는 점, 진로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대별 특성 및 수준이 다를 수 있어 포커싱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주요성과에 있어 ‘가정복귀’가 아닌 사회복귀로의 성과 방향성 설정을 통해 자립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필요, 공동생산(co-production)등의 개념을 적용해 쉼터 규칙 등을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쉼터’를 고민하고 적용,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 설계 및 매뉴얼 제공 필요 등의 코드화는 인권친화적 기관 운영 필요라는 하위주제로 수렴될 수 있었다.

아웃리치센터, 생활쉼터(단기, 중장기 복합시설), 자립지원관, 가정밖 청소년지원센터(도단위), 생활형 치료 쉼터, 자립 특성화, 치료형 쉼터, 경계선 대상 사회화 및 자립 훈련 쉼터, 창업준비 쉼터, 쉼 쉼터, 독립생활 준비 쉼터 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모색, 쉼터-자립훈련공간-자립지원관(이용형) 등으로 쉼터형태를 제안한 코드들은 기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쉼터라는 하위주제로 귀결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1실 다인 → 2인 1실, 무인시스템 도입, 메타버스 형식의 가상 쉼터, 온라인 아웃리치의 활성화,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은 쉼터 공간에서 있어서의 보다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하위 주제를 수렴하였다. 이런 각각의 유형별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에 따른 각 유형별 청소년쉼터 고유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인권친화적 기관 운영 필요, 쉼터 공간의 현대화 필요가 하위주제는 취합하여 뉴노멀 시대에서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모형에 관한 주제로 수렴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뉴노멀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모형에 관한 주제분석

코드 예시	하위 주제	주제
현재 생활 권역별/지역별로 유형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도 설계된 패턴대로 연계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 발생	유형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 발생에 따른 각 유형별 청소년쉼터 고유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 필요	뉴노멀 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 쉼터 모형
진로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대별 특성 및 수준이 다를 수 있어 포커싱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주요성과에 있어 ‘가정복귀’가 아닌 사회복귀로의 성과 방향성 설정을 통해 자립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필요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필요	인권친화적 기관 운영 필요	뉴노멀 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 쉼터 모형
공동생산(co-production)등의 개념을 적용해 쉼터 규칙 등을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쉼터’를 고민하고 적용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 설계 및 매뉴얼 제공 필요		
아웃리치센터, 생활쉼터(단기, 중장기 복합시설), 자립지원관	기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쉼터	뉴노멀 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 쉼터 모형
가정밖 청소년지원센터(도단위)		
생활형 치료 쉼터, 자립 특성화, 치료형 쉼터, 경계선 대상 사회화 및 자립 훈련 쉼터, 창업준비 쉼터, 쉼 쉼터, 독립생활 준비 쉼터 등		
쉼터-자립훈련공간-자립지원관(이용형)	쉼터 공간의 현대화 필요	뉴노멀 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 쉼터 모형
1실 다인→ 2인 1실		
무인시스템		
메타버스 형식의 가상 쉼터		
온라인 아웃리치의 활성화		
비대면 서비스 제공		

따라서 최종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뉴노멀시대의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모형에 관한 주제로 귀결되었다.

V.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쉼터의 모형 전환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뉴노멀 시대환경에서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쉼터의 전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아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청소년쉼터 운영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었다. 이에 기반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시, 단기, 중장기 등의 거주 기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청소년쉼터 모형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황진구 외(2020)의 연구에서도 아웃리치센터(일시), 일시형 청소년쉼터(3일), 일반형 청소년쉼터(3년), 자립지원관(1년)으로 기간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유형 변경을 위해서는 이용청소년들의 평균 보호기간과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 연령 변경(예를 들면 자립지원관 1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쉼터에서 보호 청소년의 특성과 기간, 지역사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기관 형태로 갈지 유형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둘째, 기능전환에 따른 쉼터 모형 고민시 지역사회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쉼터 모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재완(2020)의 연구에서 강조한 사회에 존재하는 복지시설 등 각종 물리적 공간의 재구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례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생각하는 독일의 경우 공동생활형 청소년쉼터(사회복지형, 사회치료형 <https://www.kit-jugendhilfe.de/arbeitsbereiche/wohngruppen/-/stationaere-hilfen-zur-erziehung>, [gruppen/wohngruppe-kompass/\), 독립생활지원형 쉼터 디아코니아 사례\(장애인 및 자폐청소년 특화 <https://diakonie-muenster.de/angebote/sozialpaedagogisch-betreutes-wohnen>\) 등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https://www.jugend-und-erziehungshilfe.de/wohn-</p>
</div>
<div data-bbox=)

현재 여성가족부(2024)에서도 비행예방형(소년보호처분 등 비행 및 범죄 이력자를 대상으로 범죄 재유입 예방을 위한 인성 및 재사회화, 활동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진로탐색형(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진로를 탐색하고, 취창업을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립촉진형(경제적 자립 및 독립생활 영위를 위한 개인경제교육, 독립거주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업형(가출 청소년 중 학업 지속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반, 재학반, 대안학교 진학반 등 학업복귀 전문프로그램 운영), 경계성 지적장애 치유형(경계성 지적장애 청소년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별도 치료프로그램 운영), 사회성향상형(자립의지가 약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인성교육 및 재사회화 훈련, 활동프로그램 등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일시에서 자립지원관까지 모든 유형의 쉼터가 특히 지방에서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점점 개별화된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는 쉼터 운영에선 중복서비스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킹의 형성 및 구축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주경필, 이인혁(2022)의 위기청소년에 관한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회복탄력성-공정적 청소년 개발-멘토링이 연계된 네트워크, 학교-경험-협력이 연계된 네트워크, 폭력배-사회적 관계망-부모-예방이 연계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연계형 네트워킹의 형성 및 구축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뉴노멀 환경에서의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IT와 결합한 청소년쉼터(스마트청소년쉼터, 메타청소년쉼터, AI 기반 청소년쉼터, 모바일 기반 청소년쉼터 등) 시범 운영 등 쉼터 공간의 현대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재완(2020)의 연구결과에서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그리고 사이버 지역사회 등에서 공동체 복지를 위한 모바일 기반 스마트 지역사회만들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시 청소년쉼터 관련하여 청소년이 전문가와 상시적 혹은 정례적으로 협의하거나 함께 논의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청소년의 자치권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적,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전환시키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연구는 기관장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온오프가 결합된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쉼터 전환모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차원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 봤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다 연구대상자의 확보에 따른 많은 의견 수렴 및 타당화 과정, 분석 자료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전문 의견 수렴, 외국 사례와의 보다 치밀한 비교 분석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형용 (2020). 뉴노멀(New Normal) 복지의 도래 : COVID-19가 앞당긴 미래 사회보호의 과제. 한 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97-122.
- 서미, 이자영, 편여울강, 김지혜, 정성호, 김신아 (2022). 코로나 19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개발, 미래사회, 13, 35-53.
- 손선옥, 박현용 (2023). 경계 지적 기능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복지 제도의 도전과 해결.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31(1), 213-236.
- 여성가족부 (2023). 202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 2024 청소년 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이재완 (2020).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4, 29-55.
- 임주원, 김서형, 홍진주 (2022). 자립준비청소년 지역 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이화사회과학지, 38(2), 145-186.
- 정대영 (2022). 중독성향이 높은 해외여행 경험자의 코로나 스트레스가 비합리적 관광사고, 부정적 정서, 뉴노멀 관광상품 구매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정지은 (2022). 독립을 준비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주경필, 이인혁 (2022). 위기청소년에 관한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사회, 13, 1-16.
- 천우정 (2019). 4차 산업혁명의 뉴노멀, 서울: 세움최재천, 장하준, 최재봉, 홍기빈, 김누리, 김경일, 정관용 (2020).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셜
- 황진구, 김지연 (2020). 기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구조조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entley, M., Peerenboom, C. A., Hodge, F. W.,

- Passano, E. B., Warren, H. C., & Washburn, M. F. (1929). Instructions in regard to preparation of manuscript. *Psychological Bulletin*, 28(2), 57 - 63.
- Biswas-Diener, R. (2006). From the equator to the north pole: A study of character strength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3), 293-310.
- Boyatzis, R. E. (1998). *Transforming Qualitative Information: Thematic Analysis and Code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투고일자: 2024. 4. 30.
심사일자: 2024. 5. 11.
게재확정일자: 2024. 5. 13.

Qualitative study on the Transformation Model of Youth Shelters in the New Normal Era

YunNa Kim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policies for out-of-home youth in the new normal era by discovering the changes in how they use youth shelters and in the voices of institutional heads. According to the future developmental model for youth shelter conversion. Thu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w normal, the type of youth shelter, and the research trend for youth shelters. A written survey was conducted the heads of institutions from September 27 to October 11, 2023. As a result of the six-step thematic analysis presented by Braun and Clarke (2006), age, gender, family environment, reason for runaway, increased problems (psychiatric, social, internal mechanisms), and other characteristics became sub-topics, converging into them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currently use youth shelters. In addition, sub-topics such as the need to review the unique purpose of each type of youth shelter due to their specific operational difficulties, the need to operate a human rights-friendly institution, the need to operate a youth shelter in consideration of function-oriented reg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 period of time, and the need to modernize the shelter space were derived. The theme for future developmental model for youth shelters of the new normal era c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is,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and follow-up research tasks were presented.

Keywords: New Normal, Out-of-Home Youth, Youth Shelter, Transition Model, Human Rights